



시로 읽는 성보순례
송광사 16국사전
국보 제56호 송광사국사전
조선시대 ▶2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하여
작은 악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쌓여 그릇을 채운다.
'법구경 상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6월 14일) · 주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99 호 2012년 8월 1일 수요일

만해학의 지평 아시아로 확장

만해학회 7월 27일 '아시아와 만해' 세미나

일제의 만행이 아시아로 뻗은 1930년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불교혁신과 더불어 평화공존을 주장한 만해 한용운 스님. 스님의 불교개혁 사상과 당시 동아시아 각국 평화 개혁 사상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만해학회(학회장 한계진)가 7월 27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와 만해'를 주제로 연 만해추진 기념 세미나에서는 각국 평화개혁가들과 만해 스님의 사상에 대한 비교·고찰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연구에만 머물렀던 만해스님의 연구가 동아시아 전반으로 지평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전기철 만해학회 사무국장(승의여대 교수)은 "만해 사상에 대한 조명은 그동안 국내 중심에 머물러왔다. 이제 국제로 발을 넓혀 외국 사상가들과 같은 위치에서 비교 검토를 통해 만해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만해학회는 2012년을 만해 사상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만해 스님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데 이어 중국까지 침략한 1930년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불교혁신과 더불어 평화혁명을 주창했다.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갈망한 만해사상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등지에서 문화유산으로

그 사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해 한용운이 서구문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며 일본 유학을 했고, 양계초 저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만해 한용운 입적 이후 60년간 진행돼 온 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 머물러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선불교유신론>에 대한 이해와 국내 불교계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넘어 세계 평화사상, 개혁사상에 미

만해의 평화 개혁사상 비교
만해학 세계화 발판 마련
하반기 국제세미나도 예정

친 만해의 영향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한용운의 불교개혁 사상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총론을 시작으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이동인과 만해: 근대불교의 개화와 유신'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한용운과 세노오 기로의 불교혁신사상 비교연구' 등 각국 개혁 사상가와의 비교 연구가 발표됐다.

홍사성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홍보위원장은 "노신이 중국과 아시아, 세계의 노신인 것처럼 만해 스님도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조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9면

재가불자 안거 열기...삼복더위 어디로 갔나



염천의 더위에도 재가자들의 수행열기는 뜨겁다. 봉은사 봉은선원에 방부를 들인 재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수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올해도 재가 불자들의 안거 열기가 뜨겁다. 전국 사찰의 시민선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선원은 대략 80여 곳. 직접 3개월 방부를 들이고 스님과 똑같이 화두를 잡는 형식부터 오전과 오후, 시간을 정하고 집과 선원을 오가며 수행하는 방식까지 안거 참가 방법도 다양하다.

시민선원이 대중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바쁜 재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거도 생겨났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만춘, 이하 대중결사)는 회원 사찰들을 중심으로 지난

해 하안거부터 '재가안거 수행결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안거에는 부산전법도량 소속 7개 사찰이 참여해 현재 17개 사찰, 1300명의 재가자가 용맹정진 중이다. 대중결사의 '재가안거 수행결사'는 일상생활에서 수행정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특히 참선이 아닌 자신이 선호하는 수행법을 선택해 정진하고 매일 적극적인 선행을 쌓도록 하는 게 대중결사 '재가안거 수행결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대중결사 재가안거에는 매일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수행록>이 제공되며 안거를 성만했을 시 안거증

80여 사찰·시민선원 운영
출퇴근·방부 등 방법 다양

대중결사 재가안거 '눈길'
17개 사찰, 1300명 수행

젊은층 참가 비율은 적어
힐링 등 단계프로그램 필요

도 수여된다.

'재가안거 수행결사'에 대해 이명호 대중결사 사무국장은 "본격적인 재가 수행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재가 안거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선만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화 돼가는 재가 안거와 시민선원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분명 존재한다. 구참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젊은 층의 참여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가안거나 시민선원 문화가 정체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재가안거에 단계별 수행 프로그램과 교

학을 기반한 강의 프로그램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제안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이제 재가 안거 세부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젊은층이 안거에 참여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올바른 수행을 위한 교학 강의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수행의 열기가 포교적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시스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기사 5면

원로회의 소위 '부결 종헌 개정안' 논의

27일 1차 회의... 조계종 원로의원 자격 등도 다뤄

조계종 원로회의의 소위원회(위원장 현해)는 7월 27일 1차 회의를 열고 제40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현해 스님은 원로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종헌 개정안'을 참가 위원 스님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세

부적인 사안은 오는 8월 6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해 스님이 배포한 개정안에는 종정 자격을 '연령 70세 이상'으로 하고, 원로의원 범계에 '대중사'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위원회는 부결된 '종헌' 개정안의 대안과 종정·원로의원

자격, 말번자 사면 등의 사안을 논의한 후 취합된 의견을 총무원과 중앙총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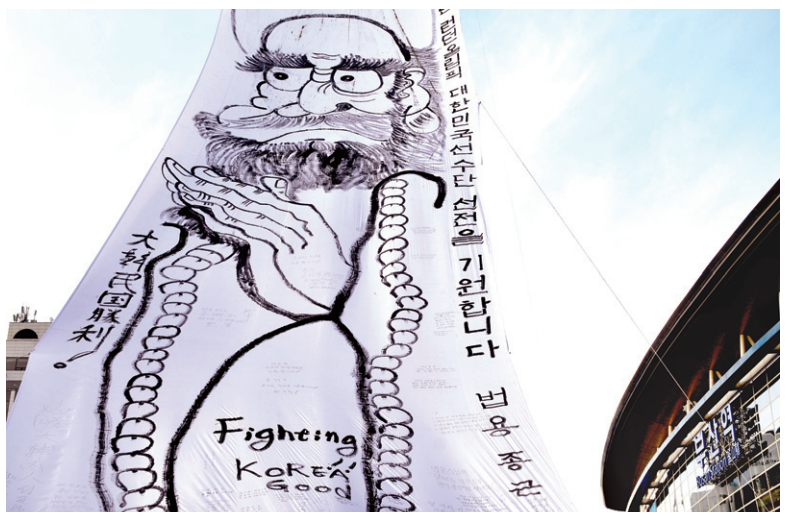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현해스님을 비롯해 종하, 월탄, 밀운, 명선, 압도, 인환, 원명, 월서 스님 등 9명이 참석했으며, 도문 스님은 불참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중앙총회(의장 보선)는 7월 25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원로회의의 부결로 인한 요소가 생긴 종법 개정안들을 공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총회 의원 주경 스님은 "종회 논의를 거쳐 상정된 종헌 개정안 인준이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원로회의의 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종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9월 18일 종회를 열기로 하고 그 사이 원로스님들에게 종헌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원로회의의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정안을 반영해 종헌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899호 INDEX	
종단 화쟁위원회 2기 출범의 과제	2
종합 사찰 에너지 정책 토론회	3
신행 올림픽 선수들의 모정불심	6
나의 서원 나의 신행 부산 화엄사회주 각성 스님	16·17



달마 스님도 올림픽 선전 기원 7월 24일 부산역 광장에 달마도의 대가 범용 스님이 그린 45m 크기의 대형 달마도가 걸렸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달마도는 24일 하루동안 전시돼 오가는 부산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教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론 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윤희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 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